

청소년 약물남용의 의식실태 및 예방전략에 관한 연구*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박중선** · 은종영*** · 정미영****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류에게 미해결의 장으로 남아있는 것이 3가지가 있다. 환경오염과 기근 그리고 전쟁이다. 그런데 이같은 전쟁, 기근, 환경오염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정신세계를 황폐화시킨다는 면에서 더욱 무서울 수가 있는 약물남용 문제가 하나 더하여 인류의 장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비추고 있다(주왕기 등, 1993).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약물남용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남용대상층도 일반인들을 포함해서 학생, 청소년들에게로 확산되었다. 남용약물의 종류도 다양해져 히로뽕, 대마초 사용에서부터 청소년들에게는 본드와 부탄가스 흡입 및 의약품들이 남용되기 시작했다. 사실 우리는 마약류 사범의 증가 추세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청소년들 사이에 약물남용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일뿐 객관적 입장에서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한 남용자의 분포도 일부 도시 지역에 국한되었던 것이 농촌으로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와 같은 약물남용자의 숫적증가, 지역적 확산 및 사용계층의 대중화 현상은 현재와 같은 추세가 방치

된다면 2-3년안에 추정 사용자 수가 100만명으로 예상된다.

신문지상의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 고등학교 1,000명중 2.1명이 필로폰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교육부(1997)에서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지난해 7-11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6대도시의 29개 중, 고생 28,111명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한 결과 0.21%인 60명이 매탐페타민(필로폰)에 양성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불법약물의 남용문제는 한 개인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한 국가의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사회가 비교적 안전지대에 속하고 또한 약물정책 역시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1993년에 들어서면서 다시 약물사범의 검거인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이제까지의 약물통제정책의 방향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였던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최근 약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물질남용 문제는 물질남용의 문제로만 한정시켜 생각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그리고 사회적 재응답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간호의 일차적 의무

* 이 논문은 1997년도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조성비(지역개발연구과제)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목포과학대학 간호과 부교수

*** 목포과학대학 간호과 조교수

**** 목포과학대학 간호과 전임강사

가 ‘건강한 인간’에 대해 주어진 것이라면 청소년들이 물질남용에 대한 간호학적 대처가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약물남용에 관해 일부지역에서 많은 실태 파악이 있었으나 특히 도서지역을 끼고 있는 전남지역은 잠재적으로 약물남용에 대한 실태파악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는 약물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적 요소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그러므로 전라남도 지역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약물남용실태 및 태도, 그 밖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여 예방적 전략을 제시하는 토대가 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일반적 목적은 전라남도 지역내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약물남용 실태 및 태도, 그밖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약물관련 제 특성을 파악한다.
- 3) 약물에 대한 태도 및 약물남용 고위험 요인관련 제 변수들을 파악한다.
- 4) 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대상을 특정지역에 국한하였으므로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할 수 없다.

II. 이론적 배경

한국의 청소년은 전체인구의 29.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1985년보다 약 10%가 증가된 것이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함께 심리적, 사회적으로 심한 혼란과 복잡한 변화를 겪어 내, 외적 경험을 통합하고 성숙의 기초를 형성하며, 발달특성이 변화무쌍하고 성취해야 할 과제가 복잡한 시기라고 본다(김문실, 1997).

청소년들은 미래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인물들이다. 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균형잡힌 발달이 곧 우리나라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안녕 및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만큼 이들의 성장과 성숙에 관한 문제는 중대하다.

이들 청소년들이 성숙한 사회인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신, 신체, 사회적인 면의 균형잡힌 성장, 발달이 요구된다(김문실, 1997). 그러나 현실적으로 급격한 사회변화와 첨단과학 문명의 발달 및 학업위주의 학교교육, 치열한 입시경쟁 등으로 건강의 가치를 망각하거나 중요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최정신 등, 1998).

특히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이 무척 심각하다는 실태조사자료가 쏟아지고 있다. 약물남용은 약물의 비의학적 사용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약물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학적 목적과 관계가 없거나 의학적 효과가 전혀없는 물질을 감정, 인식,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약물사용의 동기는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스트레스와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 호기심, 친구의 권유 등이 보통이다. 한번 시작된 약물은 결과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습관성이나 중독성을 띄게 된다.

약물을 남용하는 사람들은 흔히 하나의 약물만을 사용하기 보다는 약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의 물질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면, 청소년은 본드나 가스를 흡입하면서 술과 담배를 함께 사용하는데 이는 약물의 특성상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최남희, 1997).

따라서 WHO와 미국정신의학회에서 제시한 물질남용 기준들 중 WHO에서는 ① 한번 사용하면 자꾸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의존성), ② 사용할때마다 양을 늘리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내성), ③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건디기 힘든 이상을 일으킨다(금단증상), ④ 개인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물질로 보았고, 미국정신의학회는 여러 가지 남용기준 가운데 한가지 이상을 1년이상 지속시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장애나 고통을 초래할 때를 말하는데, 즉, 약물사용으로 인해 학교, 직장, 가정안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신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약물을 사용하며, 약물사용으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약물사용으로 사회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약물을 사용할 때이다(최남희, 1997).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약물남용의 원인은 첫째, 유전적 요인이 있으나 남용자 가족중에 남용자가 많다는 것인데 유전때문인지 파괴적 가정 환경때문인지 아직 확실치 않다. 둘째, 심리적 요인으로 정서적 미숙, 대인관계 특히 이성관계의 실패, 적대적이며 공격적인 성격,

반항, 도박, 호기심, 권태나 고통으로 부터의 도피, 쾌락에 대한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원인이 된다. 셋째, 사회적으로 심한 경쟁과 소외등이 약물남용의 토양을 마련한다. 그런데다가 친구의 권유, 집단의 압력, 범죄조직의 강제적 개입, 오도되고 과장된 정보의 범람, 세계적인 판매량, 막대한 경제적 이익등이 개입되어 있는 사실등이 남용을 조장한다(민성길, 1990).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복지적인 재활제도가나 약물남용에 대한 홍보 및 보건교육이 미비한 상태에 있으며, 일부 지역적으로 약물남용 상담센터와 같은 기구들이 형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제도가 더 보완되어야 하고,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은 약물에 대한 부작용 및 올바른 약물복용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야할 보건교육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최정신 등, 1998).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약물남용 의식실태 및 예방전략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남 교육연감(1996)의 학교현황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32개교의 중, 고등학교를 층화무작위 표출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1, 2, 3학년 183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서술연구이다.

2. 연구 도구

1) 약물관련 제 특성 측정도구

약물관련 제 특성은 한국청소년학회(1996)연구시 사용된 설문지를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것으로 약물정보 습득경로, 교육경험 및 법적규제 등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약물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

약물에 관한 태도는 한국청소년학회(1996)연구시 사용된 설문지를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것으로 총 13문항으로 확실히 그렇다, 어느정도 그런편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및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빈도와 백분율로 측정하였다.

3) 약물사용 고위험요인 측정도구

약물사용 고위험요인 검사는 김정빈(1994)이 개발,

진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제1부는 개인 및 주변환경과 관련된 질문이며, 제2부는 친구 및 학교와 개인생활, 제3부는 성격과 가치관, 제4부는 부모님의 설문제, 제5부는 자신의 심리 및 건강상의 문제 및 제6부는 집안내력과 부모님의 특징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문항중 제1, 2, 3, 5, 6부에서 1-8번은 각 문항당 8점을 만점으로 하여 그렇다 8점, 애매하다 4점으로 점수화 하였고, 9-12번은 각각 문항당 9점을 만점으로 하여 그렇다 9점, 애매하다 4.5점으로 하였고, 제4부는 각 문항당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그렇다 10점, 애매하다 5점으로 하였다. 이들 중에서 제1부는 평균 20점 이상, 제2부는 평균 45점 이상, 제3부는 평균 32점 이상, 제4부는 27점 이상, 제5부는 40점 이상, 제6부는 평균 14점이상이면 약물사용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는 1997년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50일간 본 연구자들이 대상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연구에 대한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약물남용관련 배경, 약물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제 변수(개인 및 주변환경, 친구 및 학교와 개인생활, 성격과 가치관, 부모의 설문제, 심리 및 건강상 문제, 집안내력과 부모님의 특성) 각각은 빈도와 퍼센트로 산출하였고, 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통계처리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종교를 가진 군이 64.9%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고, 주거형태는 자택이 85.5%였다(표 1).

부모가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가 10.8%로 가정환경적 불안정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중졸 이상이 각각 72.5%, 79.2%로 어느정도 교육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되면서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직업여성의 증가를 보여주듯이 어머니가 일정수입이 있는 군이 64.2%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이 상담대상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친구가 58%이고 어머니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구 분	실수(N) / 백분율(%)	특 성	구 분	실수(N) / 백분율(%)
소 속			아버지의 교육수준		
학 년	중학교	176(9.6)	아버지의 월수입	문맹	55(3.0)
	고등학교	1654(90.4)		국졸	326(17.8)
	1학년	175(9.6)		중졸	390(21.3)
	2학년	424(23.2)		고졸	810(44.3)
	3학년	1231(67.2)		대졸이상	249(13.6)
성 별	남 여	789(43.1) 1041(56.9)	이미녀의 월수입	없다	56(3.0)
				일정치 않다	828(45.2)
연 령	14세 이하 15-17 18세 이상	210(11.6) 704(38.4) 916(50.0)		100만원 미만	186(10.2)
				100-200만원	470(25.7)
				200만원 이상	290(15.9)
종 교	무 천주교 기독교 불교	643(35.1) 147(8.0) 763(41.8) 277(15.1)		없다	654(35.8)
				일정치 않다	687(37.5)
				100만원 미만	275(15.0)
				100만원 이상	214(11.7)
			상담 대상자	아버지	58(3.2)
경제수준	상류층 중산층 중류층 하류층	43(2.3) 615(33.6) 1019(55.7) 153(8.4)		어머니	320(17.5)
				선생님 / 선배	91(4.9)
				친구	1061(58.0)
				기타	300(16.4)
			건강상태	아주 건강하다	327(17.8)
학교성적	상 중 하	307(16.8) 1168(63.8) 355(19.4)		건강하다	1312(71.7)
				나쁘다	191(11.5)
주거형태	자택 자취 친적집 / 하숙	1565(85.5) 113(6.2) 152(9.3)	대인관계	어머니	456(24.9)
				아버지	115(6.2)
				형제·자매	338(18.5)
				이성친구	146(8.0)
부모의 결혼상태	결혼 이혼 사별	1633(89.2) 81(4.5) 116(6.3)		동성친구	580(31.7)
				선·후배 / 선생님	195(10.7)
			자기 만족도	불만족	427(23.4)
어머니의 교육수준	문맹 국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58(3.2) 446(24.3) 542(29.6) 685(37.5) 99(5.4)		외모·성격문제	262(14.3)
				성격문제	289(15.8)
				가족문제	393(21.5)
				대인관계	326(17.8)
				기타(이성문제)	133(7.2)

가 17.5%로 청소년기의 특성상 친구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었으며, 대인관계 역시 동성친구가 31.7%이고 어머니가 24.9% 순으로 원만함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대한 질문에서 불만족이 23.4%이고 가족문제(21.5%), 대인관계(17.8%), 성격문제(15.8%) 순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한국청소년학회(1996)의 전국 실태조사에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61%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친구와의 관계는 53.5%로 만족한다고 보고하였다.

2-1. 약물관련 제 특성

대다수(72.2%)의 청소년들은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관한 정보를 TV, 신문, 잡지, 광고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얻고 있었으며, 학교 친구나 선·후배(4.5%)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방송언론매체가 청소년의 건전한 사고와 가치관 정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미디어의 공익성이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시금 생각된다. 약물에 대한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48.8%) 보다 없다(51.2%)가 약간 상회한 점을 보아 이 지역 약물남용 예방교육의 강화 필요성이 지적 되었고, 예방교육에 대한 만족정도는 49.3%로 불만족한 것으로 보아 교육방법면에서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교육방법을 통해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술, 담배 판매에 대한 법적규제에 대하여 69.2%가 모르고 있다고 대답하여 이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리라 본다(표 2-1).

2-2. 약물남용에 대한 인지도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대한 인지도를 보면, 담배(79.1%), 술(74.1%), 본드(55.1%), 가스(49.8%), 가정제(48.5%), 마약(29%), 대마초(27.8%), 이노제(21.9%) 순으로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였는데 한국청소년학회(1996)의 연구를 보면, 술의 경우 남자의 75%, 여자의 80.2%(총 77.9%)가 상습적으로 술을 마실때만이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술에 대해 매우 허용적이고 또한, 술을 권하는 술문화가 널리 퍼져있고, 또한 이것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술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주어 술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융합하게 하고 기분을 즐겁게 해수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며, 성적으로도 왕성하게 된다고 믿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담배의 경우도 남자의 71.8%, 여자의 69.7%(총 70.6%)정도나 상습적으로 흡연을 할 때에만 해롭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TV에 나오는 성인들처럼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표 2-1〉 약물관련 제 특성

특 성	구 분	중 학교		고 등 학 교		실수(N) / 백분율(%)
		남(N/%)	여(N/%)	남(N/%)	여(N/%)	
약물정보 습득경로	TV, 신문, 잡지, 광고	64(3.5)	54(3.0)	477(26.1)	726(39.6)	1321(72.2)
	학교친구나 선·후배	3(0.2)	2(0.1)	34(1.9)	43(2.3)	82(4.5)
	기타	3(0.2)	—	30(1.6)	29(1.6)	62(3.4)
	없다	25(1.4)	25(1.4)	153(8.3)	162(8.8)	365(19.9)
예방교육 경험	없다	66(3.6)	67(3.6)	331(18.1)	474(25.9)	938(51.2)
	1회	10(0.6)	2(0.1)	145(7.9)	139(7.6)	296(16.2)
	2회	12(0.7)	7(0.4)	4(0.2)	2(0.1)	25(1.4)
	3회 이상	7(0.4)	5(0.3)	214(11.7)	345(18.8)	571(31.2)
예방교육에 대한 만족정도	매우 만족	4(0.2)	2(0.1)	112(6.1)	45(2.5)	163(8.9)
	만족	16(0.9)	15(0.8)	64(3.5)	102(5.6)	197(10.8)
	그저 그렇다	14(0.8)	5(0.3)	223(12.2)	325(17.7)	567(31.0)
	불만족	61(3.3)	59(3.2)	295(16.1)	488(26.7)	903(49.3)
약물남용 상태에 대한 정보습득 경험 유무	있다	25(1.4)	20(1.1)	117(6.4)	168(9.2)	330(18.1)
	없다	70(3.8)	61(3.3)	577(31.5)	792(43.3)	1500(81.9)
	없다	65(3.5)	77(4.2)	473(15.9)	830(45.4)	1445(79.0)
	음란 비디오	10(0.6)	—	70(3.8)	24(1.3)	104(5.7)
	무단결석	1(0.1)	1(0.1)	42(2.2)	23(1.3)	67(3.7)
	가출	4(0.2)	—	29(1.6)	26(1.4)	59(3.2)
	기타	15(0.8)	3(0.2)	80(4.4)	57(3.1)	155(8.4)
	알고 있다	39(2.1)	24(1.3)	163(8.9)	338(18.5)	564(30.8)
술·담배 판매에 대한 법적규제 이해유무	잘못 알고 있다	56(3.1)	57(3.1)	531(29.0)	622(34.0)	1266(69.2)

죽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타인에게 주는 피해를 생각하기 보다는 담배광고속의 멋진 남성 혹은 여성을 생각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본드의 경우는 남자의 66.7%, 여자의 60.2%(총 63.0%)가 가끔이나 상습적으로 흡입할때만 해롭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가스로 담사의 60.8%, 여사의 54.7%(총 57.3%)가 가끔이나 상습적으로 흡입할때만 해롭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 본드와 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신체기능상의 장애를 일으키고 심각한 뇌손상을 일으키고 손상된 뇌세포는 회복되기 힘들며 심하면 치매를 가지고 올 수 있다(표 2-2).

2-3. 약물남용 상태

청소년 약물남용 현황을 보면, 술 38.2%, 담배 14.3%, 대마초 9.4%, 이뇨제 9.2%, 진통제 5.7%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학회(1996)의 전국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음주경험은 다른 약물에 비해 여전히 가장 경험율이 높은 것으로써 89년도 61.1%, 91년도 61.8%, 93년도 59.7%, 96년도 71.8%로 93년까지는 60%내외로 청소년의 과반수 이상이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96년도에는 음주경험이 많아 상승하여, 2/3 이상이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흡연경험의 연도별 추세를 살펴보면, 89년도 46.0%, 91년도 38.6%, 93년도 26.9%, 96년도 29.6%로 89년도에는 절반정도의 청소년이 흡연경험이 있었으나 96년도에는 1/3정도의 청소년이 흡연경험이 있는 것으로

로 나타나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대마초의 경우 89년도 1.9%, 91년도 0.8%, 93년도 0.9%, 96년도 0.5%로 대마초 흡연경험이 감소하는 추세이다(표 2-3).

3-1. 약물에 대한 태도

약물에 대한 태도면에서, 약물은 건강에 해롭고 몸에 좋지 않다(79.1%)고 응답하여 약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학생들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음을 알수 있었으며, 환각목적 등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17.1%)고 잘 못 알고 있었고, 시험기간이나 어려운 일을 처리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16.8%)라고 응답하여 청소년의 허약함이 지적되어 이들에게 강인함을 불러 일으키고 스스로 행할수 있는 자신감을 일깨우는 내적 교육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다.

또한, 환각목적 등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과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무관하다고 알고 있는 군이 16.7%였으며,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한두번쯤 환각목적 등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13.4%)고 응답하여 호기심으로 인한 약물남용 가능성이 지적되었고, 이성 친구에게 환각목적등으로 약물을 먹여 내마음대로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때가 있다(10.6%)라고 응답하여 이성에 대한 약물의 복용 충동이 성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표 3-1).

〈표 2-2〉 약물남용에 대한 인지도

특 성	매우 심각 (N/%)	심각 (N/%)	그저 그렇다 (N/%)	심각하지 않다 (N/%)	전혀 심각하지 않다 (N/%)
가스	356(19.5)	555(30.3)	525(28.7)	166(9.0)	228(12.5)
본드	422(23.1)	585(32.0)	421(23.0)	173(9.4)	229(12.5)
마약	289(15.8)	241(13.2)	458(25.0)	369(20.2)	473(25.8)
감기약류	277(15.1)	389(21.3)	584(31.9)	299(16.3)	281(15.4)
각성제	432(23.6)	455(24.9)	494(27.0)	200(10.9)	249(13.6)
진통제	343(18.8)	413(22.6)	574(31.4)	229(12.4)	271(14.8)
신경안정제	179(9.8)	310(16.9)	604(33.0)	353(19.4)	384(20.9)
술	874(47.8)	482(26.3)	245(13.4)	98(5.4)	131(7.1)
담배	982(53.7)	464(25.4)	158(8.6)	81(4.3)	145(8.0)
대마초	313(17.1)	197(10.7)	383(20.9)	344(18.8)	593(32.5)
히로뽕	304(16.6)	193(10.5)	367(20.1)	338(18.5)	628(34.3)
환각제	312(17.0)	320(17.5)	406(22.2)	292(16.0)	500(27.3)
코카인	234(12.8)	240(13.0)	435(23.8)	339(18.5)	582(31.9)
이뇨제	189(10.3)	212(11.6)	438(23.9)	162(19.8)	629(34.4)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197(10.7)	237(13.0)	420(23.0)	346(18.9)	630(34.4)

〈표 2-3〉 약물남용 상태

특 성	비해당 (N/%)	기회가 되면 (N/%)	매 일 (N/%)	2-3회/주 (N/%)	2-3회/달 (N/%)	1회/달 (N/%)
가스	1789(97.7)	12(0.7)	9(0.5)	5(0.3)	9(0.5)	6(0.3)
본드	1798(98.2)	15(0.8)	2(0.1)	1(0.1)	7(0.4)	8(0.4)
마약	1814(98.9)	9(0.5)	3(0.2)	3(0.2)	1(0.1)	1(0.1)
감기약류	1468(80.2)	243(13.3)	5(0.3)	6(0.3)	28(1.5)	80(4.4)
각성제	1720(94.7)	69(3.8)	9(0.5)	1(0.1)	15(0.8)	16(0.9)
진통제	1550(84.7)	168(9.2)	6(0.3)	5(0.3)	24(1.3)	77(4.2)
신경안정제	1771(96.7)	41(2.2)	2(0.1)	2(0.1)	4(0.2)	10(0.5)
술	1132(61.8)	382(20.9)	14(0.8)	34(1.9)	114(6.2)	154(8.4)
담배	1568(85.7)	75(4.1)	121(6.6)	11(0.6)	25(1.4)	30(1.6)
대마초	1814(99.1)	9(0.5)	2(0.1)	2(0.1)	2(0.1)	1(0.1)
히로뽕	1818(99.2)	7(0.4)	3(0.2)	1(0.1)	-	1(0.1)
환각제	1816(99.1)	9(0.5)	3(0.2)	1(0.1)	1(0.1)	-
코카인	1875(99.1)	12(0.7)	-	1(0.1)	-	2(0.1)
이노제	1821(99.4)	7(0.4)	1(0.1)	-	-	1(0.1)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1820(99.4)	8(0.4)	1(0.1)	-	-	1(0.1)

〈표 3-1〉 약물에 대한 태도

항 목 들	확실히 그렇다 (N/%)	어느정도 그렇다 (N/%)	그저 그렇다 (N/%)	별로 그렇지 않다 (N/%)	절대 그렇지 않다 (N/%)
약물은 건강에 해롭고 몸에 좋지 않다	1015(55.4)	434(23.7)	207(11.3)	65(3.5)	109(5.9)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한 두 번쯤 환각목적 등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	121(6.6)	125(6.8)	177(9.7)	145(7.9)	1262(69.0)
환각목적 등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161(8.8)	59(3.2)	152(8.2)	164(9.0)	1294(70.8)
환각목적 등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과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무관하다	188(10.3)	118(6.4)	203(11.1)	182(9.9)	1139(62.3)
환각목적 등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127(6.8)	188(10.3)	230(12.6)	166(9.1)	1119(61.2)
환각목적 등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멋진 사람이다	93(5.1)	29(1.6)	89(4.9)	58(3.2)	1561(85.2)
환각목적 등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과 폐인이 되는 것과는 무관하다	156(8.5)	77(4.2)	131(7.2)	125(6.8)	1341(73.3)
환각목적 등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과 법적 처벌과는 무관하다	106(5.8)	71(3.9)	153(8.4)	174(9.5)	1326(72.4)
환각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약물의 값이 싸다면, 한 번 사용해 보고 싶다	78(4.3)	49(2.7)	122(6.7)	72(3.9)	1509(82.4)
환각목적 등으로 약물을 사용하여 기분이 좋아진다면, 약간의 후유증은 무시해도 된다	76(4.2)	51(2.8)	137(7.5)	133(7.3)	1433(78.2)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두번쯤 환각목적 등으로 약물을 사용해 보고 싶다	56(3.1)	60(3.3)	115(6.3)	76(4.2)	1523(83.1)
이성친구에게 환각목적 등으로 약물을 먹여 내마음대로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106(5.8)	87(4.8)	113(6.2)	96(5.2)	1428(78.0)
시험기간이나 어려운 일을 처리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95(5.2)	213(11.6)	213(11.6)	164(9.0)	1145(62.6)

3-2. 약물과 관련된 개인 및 주변환경

개인 및 주변 환경이 청소년들에게 약물남용 가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진단한 것으로 평균 20점 이상이면 약물사용 가능성 있는 것으로 예측했는데, 27.4%(남 15.3%, 여 12.1%)가 약물 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주변환경과 개인의 취미, 부모님의 교육수준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겠다(표 3-2).

3-3. 약물과 관련된 친구, 학교와 개인생활

친구, 학교, 개인 생활이 청소년의 약물남용 가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진단한 것으로 평균 45점이상이면 약물남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20.6%(남 12.0%, 여 8.6%)로 예측되며 학교 생활의 적응도와

이성간의 만남, 개인의 호기심에 의한 욕구충동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약물남용을 부추기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본 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내용 이리 하겠다(표 3-3).

3-4. 약물과 관련된 성격과 가치관

청소년의 성격과 가치관이 약물남용을 가능케 하는 원인으로 어느정도 작용하는가를 조사한 것으로 평균 32점 이상이면 약물남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했는데, 40.5%(남 19.5%, 여 21.0%)로 상당히 높은 약물 사용가능성이 예측되어 성격과 청소년의 사치관이 약물 남용 가능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나타나 도덕, 윤리적 가치관 교육이 중요한 교육강화요인으로 생각된다(표 3-4).

〈표 3-2〉 중 · 고등학교 남 · 녀별 약물과 관련된 개인 및 주변환경

특 성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실수(N)/ 백분율(%)
	남(N/%)	여(N/%)	남(N/%)	여(N/%)	
20점 미만	79(4.3)	71(3.9)	429(23.4)	749(41.0)	1328(72.6)
20 - 40점 미만	13(0.7)	9(0.5)	157(8.6)	178(9.7)	357(19.5)
40 - 60점 미만	3(0.2)	1(0.1)	75(4.0)	25(1.4)	104(5.7)
60 - 80점 미만	-	-	33(1.8)	8(0.4)	41(2.2)
80점 이상	-	-	-	-	-

〈표 3-3〉 중 · 고등학교 남 · 녀별 약물과 관련된 친구, 학교와 개인생활

특 성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실수(N)/ 백분율(%)
	남(N/%)	여(N/%)	남(N/%)	여(N/%)	
15점 미만	54(3.0)	48(2.6)	157(8.6)	348(19.0)	607(33.2)
15 - 30점 미만	25(1.4)	26(1.4)	168(9.2)	298(16.3)	517(28.3)
30 - 45점 미만	12(0.7)	6(0.3)	151(8.3)	158(8.6)	327(17.9)
45 - 60점 미만	2(0.1)	1(0.1)	128(7.0)	100(5.4)	231(12.6)
60 - 75점 미만	1(0.1)	-	50(2.6)	34(1.9)	85(4.6)
75 - 90점 미만	1(0.1)	-	26(1.3)	14(0.8)	41(2.2)
90점 이상	-	-	14(0.8)	8(0.4)	22(1.2)

〈표 3-4〉 중 · 고등학교 남 · 녀별 약물과 관련된 성격과 가치관

특 성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실수(N)/ 백분율(%)
	남(N/%)	여(N/%)	남(N/%)	여(N/%)	
16점 미만	47(2.6)	35(1.9)	200(10.9)	338(18.5)	620(33.9)
16 - 32점 미만	23(1.2)	22(1.2)	164(9.0)	260(14.2)	469(25.6)
32 - 48점 미만	15(0.8)	13(0.7)	146(8.0)	187(10.2)	361(19.7)
48 - 64점 미만	7(0.4)	8(0.4)	105(5.7)	124(6.8)	244(13.3)
64 - 80점 미만	3(0.2)	3(0.2)	49(2.7)	38(2.0)	93(5.1)
80점 이상	-	-	30(1.7)	13(0.7)	43(2.4)

3-5. 약물에 관련된 부모님의 설문제

가정의 핵심인 부모님의 술에 대한 문제가 청소년들에게 어느정도 약물남용 가능성을 보이는가를 진단한 것으로 평균 27점이상이면 약물 사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했는데 30.6%(남 14.7%, 여 15.9%)가 약물남용 가능성이 있어 청소년들의 거울인 부모님의 음주습관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표 3-5).

3-6. 약물에 관련된 심리 및 건강상의 문제

심리 및 건강상의 문제가 청소년의 약물남용 가능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진단한 것으로 평균 40점이상이면 약물남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했는데 34.6%(남 18.3%, 여 16.3%)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심리적 상태와 허약한 체질을 가진 청소년들이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를 이룩하는 강인한 정신교육이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된다.

3-7. 약물에 관련된 집안내력과 부모님의 특성

집안내력과 부모님의 특성과 청소년의 약물남용 가능성과의 상호관계를 진단한 것으로 평균 14점 이상이면 약물남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했는데 28.4%(남 13.9%, 여 14.5%)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정의 환경과 부모님의 정서적 태도가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볼 문헌은 없으나 실제로 약물을 사용하는 부모는 비행과 관련이 깊고, 자녀 양육태도에 있어 일관성이 없으며 부정적인 커뮤니케이션 패턴, 일관성없고, 불명확한 행동한계를 갖는다고 하며 이러한 것들은 가족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가족갈등이 청소년의 약물사용의 요인이 된다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표 3-5〉 중 · 고등학교 남 · 녀별 약물에 관련된 부모님의 설문제

특 성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실수(N)/ 백분율(%)
	남(N/%)	여(N/%)	남(N/%)	여(N/%)	
18점 미만	61(3.3)	35(1.9)	342(18.7)	528(28.9)	966(52.8)
18 - 27점 미만	14(0.7)	27(1.5)	104(5.7)	159(8.7)	304(16.6)
27 - 54점 미만	15(0.8)	13(0.7)	116(6.4)	125(6.8)	269(14.7)
54 - 81점 미만	4(0.2)	2(0.1)	72(3.9)	87(4.8)	165(9.0)
81점 미만	1(0.1)	4(0.2)	60(3.3)	61(3.3)	126(6.9)

〈표 3-6〉 중 · 고등학교 남 · 녀별 약물에 관련된 심리 및 건강상의 문제

특 성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실수(N)/ 백분율(%)
	남(N/%)	여(N/%)	남(N/%)	여(N/%)	
20점 미만	50(2.7)	36(2.0)	217(11.9)	380(20.7)	683(37.3)
20 - 40점 미만	18(1.0)	19(1.0)	168(9.2)	310(16.9)	515(28.1)
40 - 60점 미만	20(1.1)	20(1.1)	171(9.3)	185(10.1)	396(21.6)
60 - 80점 미만	4(0.2)	5(0.3)	99(5.4)	69(3.8)	177(9.7)
80점 미만	3(0.2)	1(0.1)	39(2.1)	16(0.9)	59(3.3)

〈표 3-7〉 중 · 고등학교 남 · 녀별 약물에 관련된 집안내력과 부모님의 특성

특 성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실수(N)/ 백분율(%)
	남(N/%)	여(N/%)	남(N/%)	여(N/%)	
14점 미만	81(4.4)	70(3.8)	441(24.8)	703(38.6)	1310(71.6)
14 - 28점 미만	9(0.5)	7(0.4)	130(7.1)	152(8.3)	298(16.3)
28 - 42점 미만	3(0.2)	1(0.1)	47(2.5)	57(3.1)	108(5.9)
42 - 56점 미만	1(0.1)	2(0.1)	43(2.3)	31(1.7)	77(4.2)
56 - 70점 미만	1(0.1)	1(0.1)	15(0.8)	11(0.5)	28(1.5)
70점 이상	-	-	6(0.3)	3(0.2)	9(0.5)

부모의 약물사용과 비행은 가족갈등의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한국청소년학회, 1996).

4. 제변수들간의 상관관계

약물에 대한 태도는 대상자가 처한 주변환경간에도 높은 상관관계($r=.64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 및 학교와 개인생활정도는 성격 및 가치관($r=.687$), 학생들의 부모의 음주문제($r=.605$), 심리 및 건강상의 문제($r=.630$)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성격과 가치관 정도는 학생들의 부모의 음주문제($r=.638$)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부모의 음주문제성도는 심리 및 건강상의 문제와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r=.747$), 심리 및 건강상의 문제는 집안내력이나 부모님 특정부분과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r=.78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V. 결론 및 예방전략

본 연구는 청소년의 약물남용 의식실태 및 예방전략을 파악하기 위하여 32개교의 중, 고등학교를 층화무작위 표출하여 총 183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서술연구이다. 자료는 1997년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50일간 설문지를 배부 회수하여 SAS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빈도와 퍼센트, 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통계처리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

1. 약물관련 제 특성

약물에 관한 정보습득 경로로서는 대다수(72.2%)의 청소년들은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관한 정보를 TV, 신문, 잡지, 광고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얻고 있었으며, 약

물에 대한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48.8%) 보다 없다(51.2%)가 약간 상회하였고, 예방교육에 대한 만족정도는 49.3%로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술, 담배판매에 대한 법적규제에 대하여 69.2%가 모르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약물남용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대한 인지도를 보면, 담배(79.1%), 술(74.1%), 본드(55.1%), 가스(49.8%), 각성제(48.5%), 마약(29%), 대마초(27.8%), 이뇨제(21.9%)순으로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약물남용 상태는 청소년 약물남용 현황을 보면, 술 38.2%, 담배 14.3%, 대마초 9.4%순으로 나타났다.

2. 약물에 대한 태도 및 약물남용 고위험 변수

약물에 대한 태도면에서, 약물은 건강에 해롭고 몸에 좋지 않다(79.1%)고 응답하여 약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학생들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음을 알수 있었으며, 환각목적 등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17.1%)고 잘 못 알고 있었고, 시험기간이나 어려운 일을 처리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16.8%)라고 응답하였다. 개인 및 주변환경은 평균 20점이상이 27.4%(남 15.3%, 여 12.1%)이고, 친구, 학교와 개인생활이 평균 45점이상이 20.6%(남 12.0%, 여 8.6%)로 나타났다.

3. 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약물에 대한 태도는 대상자가 처한 주변환경간에도 높은 상관관계($r=.64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에 대한 지식수준은 주변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r=.635$)으로 보인다. 친구 및 학교와 개인생활정도는 성격 및 가치관($r=.687$), 학생들의 부모의 음주문제($r=.605$), 심리 및 건강상의 문제($r=.630$)와 높은 상관관

<표 4> 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항 목	태 도	환 경	개 인	가치관	알 쿨	심리적 문제	가족내력
인지도	0.253	0.206	-0.087	-0.083	-0.011	0.033	0.073
태도		0.645*	-0.406	-0.382	-0.131	0.028	0.186
환경			-0.031	-0.068	0.199	0.329	0.412
개인				0.687*	0.605*	0.630*	0.409
가치관					0.638*	0.498	0.301
알쿨						0.747*	0.580
심리적 문제							0.782*

제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예방전략을 제시할 수 있겠다.

- 1) 약물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약물과 해약에 관한 지식을 높이고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이는 약물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그에 대해 토론하고, 시청각자료를 이용한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각종자료를 전시한다. 이때 실제약물 사용경험이나 치료경험이 있는 또래가 교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 다음으로는 약물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동기를 가진 교사가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감정조절교육을 시킨다. 자존심을 높이고, 책임감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호기심을 차단한다. 이를위해 교육과 토론, 다양한 경험을 기르고, 집단적으로 문제해결 기술을 훈련한다.
- 3) 자존심의 증진과 자신감의 고양, 무력감,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처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여가활동의 기회를 활성화하고 사회 봉사활동을 독려하고 직업훈련을 시킬 수 있다.
- 4) 사회적인 저항기술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다. 약물사용에 대한 사회적인 영향을 알도록 훈련하고 약물사용을 거절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친다. 이는 집단토론과 거절기술을 훈련하고 거절행동을 반복적으로 해보도록 하며, 동료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시킨다.
- 5) 가정, 학교, 사회적 차원에서서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가정에서는 자식들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으며, 가족구성원간의 믿음, 격려, 존경, 배려 등 자신의 가정에서의 존재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학교에서는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전문가 교육뿐 아니라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어 학생의 특징을 상세히 기록하여 비도하도록 한다. 또한, 약물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적으로 학산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실태조사와 강력한 법을 제정, 개정하고 예방에 관한 대책과 계몽교육 그리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통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전문가에 의해 개발되고 많은 재정적 투자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약물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문실 (1997). 청소년의 건강증진. 대한간호, 36(3), 6-15.
- 김희숙, 김계숙 (1990). 아동간호학. 신광출판사.
- 민병근 (1996). 한국 청소년의 대마초 흡연실태에 관한 종단적연구.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
- 민성길 (1990). 청소년의 약물남용. 대한간호, 29(3), 6-16.
- 박충선, 은종영 (1997). 청소년의 술, 담배, 흡입제의 남용실태와 예방에 관한연구(목포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목포전문대학 논문집, 21(1), 625-649.
- 박충선, 은종영 (1997).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보건협회지, 23(2).
- 손경애 (1992).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태와 대책. 현대사회연구소.
- 신순옥 (1985). 청소년의 성장발달 특성과 정신 사회적 문제에 관한 고찰. 강릉간접논문집, 11.
- 오동열 (1996). 학교 청소년 약물오남용 예방교육교재. 보건복지부.
- 이일남 (1995). 청소년 스트레스 이렇게 해결하라. 정성출판사.
- 장상희 (1992). 청소년 약물남용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 한국사회학, 26.
- 장영숙 (1992). 청소년들의 문제경험정도과 상담 및 교육의 필요정도에 관한 연구. 성신간접논문집, 5, 22-37.
- 정희숙 (1991). 청소년들의 약물사용실태에 대한 문헌적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주왕기, 김경빈, 박명운 (1993). 약물남용의 실태와 예방대책. 한국약물남용 연구소.
- 최남희 (1997). 청소년 물질남용과 간호. 대한간호, 36(5), 25-29.
- 최선화 (1996). 청소년과 약물남용. 홍익재.
- 최정신 등 (1998). 성인간호학. 정담.
- 하양숙 (1990). 청소년의 발달특성. 대한간호, 29(2), 6-15.
- 한국청소년학회 (1996). 청소년 약물남용실태와 예방대책연구. 문화체육부.
- 홍경자 등 (1990). 아동간호학. 수문사.
- Martin, P.J. (1991). Alcohol and Alcoholism. John Wiley & sons N. Y.
- Nahas, G.G. (1973). Marijuana-deceptive weed.

Ravenpress Books, New York, 1-50.

Plant M. (1975). Drug takers in English Town,
Travistock, London.

—Abstract—

Key concept : Adolescent, Drug abuse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and Preventive Strategies
of Adolescent Drug Abuse ***
—The Center of Chun Nam Area —

*Park, Chung Sun** · Eun, Chong Young**
Jeong, Mi Young***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consciousness
and preventive strategies of adolescent drug abuse.
This study design was descriptive surve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830 students from 32 middle
and high schools from November 11 to December 20,
1997, using questionnaire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AS computer program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

Most of adolescent get the information on
narcotics and drug abuse from TV, newspaper,
magazine and advertisement. Some of them(48.8%)
have received education on drug prevention. How-
ever, respondents(49.3%) answered unsatisfactory
on preventive education. 69.2% of respondents do
not know the legal regulation on alcohol and ciga-
rette.

The survey on the degree of cognition on drug
abuse shows the serious results ; cigarette(79.1%),
alcohol(74.1%), bonds(55.1%), gas(49.8%), excit-
ants(48.5%), narcotics(29%), marihwana(27.8%)
and, diuretics(21.9%). The situation of adolescent
drug abuse is also serious in the order of alcohol 38.
2%, cigarette 14.3%, marihwana 9.4%.

* The authors wishes to acknowledge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made in the program
year of 1997.

** Mokpo Science College, Department of Nursing, Pro-
fessor